

CAGLIERO 11

살레시오 선교 활성화를 위한 회보



만민에게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사 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들과 살레시오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 여러분!

예수 성심에게 봉헌된 6월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사제성소와 수도자 성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시에 금년이 '살레시오 선교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살레시오 선교의 날을 거행한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2011년 4월 로마에서 오스트랄리아, 미 동부,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남부, 영국, 아일랜드 등 일곱 개의 관구가 모여 살레시오 선교 자원봉사 지침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총장님께서

"자원 봉사는 ... 하느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Operazione Mato Grosso 마토 그로소 사업" 이 시작된 45년이 지난 오늘 대부분의 관구에서 젊은이들에게 선교 자원봉사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년 중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1년 혹은 단기간 동안 전 세계의 살레시오 선교지에서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예를 들면 에쿠아도르 관구에서는 자원봉사는 살레시오 성소식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을 한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으로 돌아 온 후 청소년 사목의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자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들은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생활을 24시간 개방하고, 살레시오 카리스마를 나누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성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많은 젊은 살레시오 회원들의 경험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www.sdb.org/AGORA)

많은 공동체들이 봉사자들에게 개방하도록 기도 합니다. 많은 살레시오 회원들이 젊은 봉사자들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훌륭한 선교사로 성장 할 수 있음을 믿읍시다!

안

타깝게도,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류의 상당 부분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토착민들과 특히 아시아에서 온 이민들 사이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와 같은 비그리스도교 종교들이 존재한다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교회는 만민 선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목 활동을 통한 아메리카의 새 복음화 계획은 일반 신자들의 신앙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곳에 그분을 선포하는 노력까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메리카의 개별 교회들은 아메리카 대륙 밖까지 선교 노력을 펼치도록 부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교 유산의 무한한 부요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에도 아직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해외 복음화 노력을 장려하지 않는다거나 아메리카 교회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메리카가 그리스도교의 활력을 가지고 만민 선교라는 중대한 임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교대의원회의 교부들의 실질적인 제안들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매 교회들과 협력 관계를 더욱 잘 유지하고, 선교사(신부, 수도자, 평신도)들을 아메리카 안팎으로 파견하며, 선교회들을 강화 또는 신설하고, 선교적 차원의 봉헌 생활과 관상 생활을 장려하며, 선교 증진과 교육, 조직에 더욱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아메리카의 교회 74항

Václav Clement
선교 평의원,
바츨라브 클레멘트 신부

자원 봉사를 통해 나의 살레시오 선교사 성소를 발견하였습니다.

대

학을 졸업 한 후, 우연히 미국의 동부 관구에서 실시하는 살레시오 평신도 선교 자원 봉사를 위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 보스코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선교 봉사를 떠나기 며칠 전 들었던 ‘저녁말씀’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사명은 대체로 단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볼리비아의 코카밤바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도움이신 마리아의 축일을 지낼 때입니다. 그 날은 복잡하고 무지 바쁜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아이가 나에게 상분 하나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떤 잡지에서 오려낸 예수님의 얼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선물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처럼 복잡한 행사를 치르면서도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예수님의 현존을 생각한다면 젊은이들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와 시에라 레오네에서 한 경험들은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나의 살레시오 성소도 피어나 자라기 시작했고,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나의 성소에 결정적으로 “예”라고 응답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언제 정확하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을 원의를 가졌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련소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나를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선교사로 가서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청원을 총장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 후 양성을 마친 후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선교사 파견 미사 중, 관구장이신 제임스 하우저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돈 보스코의 눈처럼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을 알아내고,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항상 저의 미국 동부 관구의 도움과 관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실습기를 남아프리카에서 보냈는데, 그 때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목의 팀이 아니었음에도, 나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멀지 않은 피정 집에서 젊은이들의 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Ldve Matters 사랑의 본질”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새해부터 시작한 삶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HIV가 창궐하는 마을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과 아이들 스스로 이병을 옮기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의 관구 남아프리카로 언제 돌아갈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던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경험이고, 도전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 남아프리카 선교사
신학생 셴 맥어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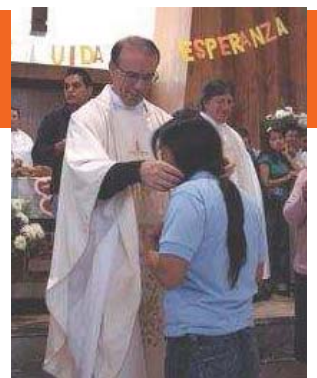


살레시오 선교 지향

라틴 아메리카, 남쪽 지방 - 지역의 선교 그룹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를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 남쪽 지역의 모든 살레시오 공동체가 2011년 살레시오 선교의 날을 위하여 청년 선교 단체의 봉사를 활성화 하도록...

남아메리카 관구군은 2010년 5월 선교 봉사에 대한 첫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레시오인들이 선교 정신을 고무하고, 총장님의 의도대로 만민을 위한 선교에 살레시오 회원을 관대하게 내 맡기며, 평신도와 살레시오 가족들에게도 선교 성소를 권장한다.” 라고 한 제26차 총회 49항의 초대가 이곳 남아메리카 관구군에서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구군의 선교 문화에는 여러 소년 소녀 선교단, 선교 단체들, 이제 모든 관구에 설립되어 있는 성인들과 젊은이들로 구성된 선교 봉사를 위한 후원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원고를 cagliero11@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